

## COVID-19 확산이 이슬람 세계에 끼친 영향

### I. 서론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3월 11일 COVID-19를 ‘판데믹’(Pandemic)으로 공식 선언하였다.<sup>1)</sup> 중국에서 COVID-19 바이러스의 발생이 보고된 2019년 12월말 이후 100일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후였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 집계에 따르면 30일 오전 8시(그리니치 표준시 29일 오후 11시) 전 세계 COVID-19 누적 확진자는 1,714만7,733명으로 보고되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을 중심으로 COVID-19 바이러스가 발생된 지 213일 만에 누적 확진자가 1,700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이 바이러스는 지리적으로도 거의 전 세계를 포괄하고 있는데, 국가별로는 미국이 455만5,039명으로 가장 많았고, 브라질 255만3,265명, 인도 158만4,384명, 러시아 82만8,990명 순이다.<sup>2)</sup> 전파속도나 심각도에서 기존의 에볼라나 메르스, 신종인플루엔자 등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는 점에서 ‘스페인 독감’이후 최대의 ‘판데믹’으로 불릴 만하다.<sup>3)</sup>

COVID-19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국제사회는 많은 변화를 경험해야만했다. 정치이념이나 경제구조의 변화 정도를 넘어서서 사람들의 생활방식과 사회구조, 종교적 관습까지 통째로 바꿔놓는 전대미문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연구자들은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까지 표현하고 있다.<sup>4)</sup>

이러한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공포와 사회질서의 혼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국가 간 이동제한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이 마비되다시피 하면서 오는 경기침체와 실업으로 이어지는 빈곤문제, 특정계층이나 인종, 민족, 종교인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 등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혼란은 이슬람 국가들도 마찬가지이다. 경제적, 사회적 혼란뿐만 아니라 1400년 동안 지켜온 종교적 관습도 변화해야 하는 상황과 마주하게 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 무슬림들의 종교적 의무이자 영광으로 알려져 있는 순례(하지:haji)를 축소 또는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전대미문의 COVID-19라는 바이러스 확산으로 혼란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이슬람 선교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랜 시간 이슬람 선교에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날 겪고 있는 혼란 가운데 수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질문과 관련하여 사실 현재의 혼란스러운 선교적 상황들을 고려할 때 이슬람 선교에 대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선교적 해답을

\*햇볼트리니티한국이슬람연구소 부소장

1) WHO declares a pandemic of coronavirus disease covid-19. *Washington Post* (March 11, 2020).

2) KBS뉴스 2020년 7월 30일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06291&ref=D>

3) 차두현, “‘코로나19’를 통해 본 ‘新 안보’와 국제질서,” *Issue Brief 10*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2020), 1.

4) 이수훈, “동북아안보정세 분석,” (한국국방연구원, 2020, 4월), 1.

찾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 글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질문에 도움이 되는 해안을 찾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보려고 한다.

첫 번째로 이슬람 세계가 COVID-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겪고 있는 사회, 경제, 종교적 상황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를 실제적 차원에서 분석할 것이다. 실제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와 연구 분석을 위해서 COVID-19 바이러스로 문제가 제기된 지난 2019년 12월 이후 세계적인 판데믹으로 선포되어 실제적으로 이슬람 세계에 영향을 끼친 최근의 상황 즉 2020년 7월까지의 상황을 다루고자 하며, 이에 더하여 이 글은 그리스도인들이 세계적인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슬람세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 이슬람국가만을 연구의 범위에 넣지 않고, 개괄적으로 중동, 북아프리카, 아시아에 분포되어 있는 국가들 중 COVID-19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이슬람 국가들을 사안별로 살펴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두 번째로 COVID-19라는 전대미문의 바이러스 확산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의 이슬람 선교와 관련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적 현실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볼 것이다.

현재 COVID-19 바이러스가 상당히 짧은 기간에 세계적인 판데믹이 되어 급속하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시작단계에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이슬람 세계의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고려할 때 이를 주제로 하여 보다 심층적인 학문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조금 더 심층적인 연구 분석은 후자의 연구에서 계속되길 기대한다.

이 글은 현재 마주하고 있는 긴박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하여 가능하면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실제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 주요 목적 중에 하나이다. 이는 이슬람 선교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본인이 처한 상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슬람 세계의 현 상황에 대하여 실제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을 돕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이 이슬람 세계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이해의 폭을 넓힌다면, 실제적인 선교적 상황을 공유하게 될 것과 동시에 현 시점에서 선교적으로 필요한 대응에 대한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은 이러한 시도에 대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이러한 첫 걸음은 현재 COVID-19 바이러스 확산으로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한 이슬람 선교 헌신자들에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선교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모티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II 이슬람 세계의 COVID-19 확산 상황

### 1. 국가별 COVID -19의 확산 상황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2020년 3월 11일 COVID-19를 '판데믹'(Pandemic)으로 공식 선언했다. 이슬람 국가들도 이러한 세계적인 감염병 악화상황에서 결코 예외가 아니었다. 이슬람 국가 중 가장 심각하게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기록한 곳으로 이슬람의 대표적인 시아파 국가인 이란을 들 수 있다. 주요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란에서는 지난 4월에 신종 COVID-19 감염증 누적 사망자가 이미 5000명을 넘어섰다. 4월의 누적 감염자는 8만 868명

에 달했다.<sup>5)</sup> 그 이후 6월 29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란에서 COVID-19로 인한 일일 신규 사망자가 처음으로 160명을 넘어 지난 2월 19일 발병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다. 이란 보건부는 현지시간 6월 29일 COVID-19 확진자는 22만 5천 205명으로 집계됐고 사망자는 전날보다 162명 증가한 1만670명으로 조사됐으며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sup>6)</sup>

이슬람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상황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지난 3월 2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사우디아라비아는<sup>7)</sup> 6월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3488만 인구에서 10만5283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인구 100만 당 3027명이라는 높은 수치를 보였다.<sup>8)</sup>

사우디 정부는 COVID-19가 확산되자 지난 3월 4일 비정기 성지순례(우라)를 전면 중단했으며, COVID-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정기 성지순례(하지)를 천 명 정도만 허용하겠다고 밝힌바 있다.<sup>9)</sup> 지금까지 매년 하지 때는 전 세계에서 온 250만 명 정도의 순례객들이 이슬람 최고 성지인 사우디 메카와 메디나에 모여왔다.

COVID-19로 인한 북아프리카 이슬람국가들의 상황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지난 5월 14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집트의 확진자는 10,829명인데 사망자는 571명이다. 이집트는 다른 북아프리카 국가들보다 방역에 더 많은 준비를 한 국가라 알려져 있지만 이번 감염병으로 경제가 악화되면 많은 아프리카계 난민, 또는 시리아에서 유입된 사람들의 생계가 염려되는 현실이다. 모로코는 확진자가 6,607명인데 사망자는 190명이라 보도되고 있다. 알제리의 경우 확진자 6,442명에 사망자 529명으로 다른 북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망자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에 비해 사망률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도되는 카타르는 바이러스 확진자의 90%가 증세가 경미하고 감염자 대부분이 중년층으로 보도되고 있다.<sup>10)</sup>

아시아의 이슬람 국가들의 상황은 북아프리카 보다 좋다고 말할 수 없다. 파키스탄의 하루 확진자 발생은 라마단 기간 중이던 5월 6일 1043명으로 처음으로 1000명을 넘었다. 5월 10일 1827명을 기록한 뒤 줄었다 늘었다를 반복하다 5월 16일 1167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런 다음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5월 22일 2243명으로 일시 정점을 찍었다. 라마단이 끝나면서 일시 하락세에 접어들어 5월 27일 1517명까지 줄었다. 하지만 그 뒤 급속한 증가세를 보여 통제가 쉽지 않은 상황을 맞고 있다. 하루 발생자 수는 6월 2일 처음으로 3000명을 넘어 3314명에 이르렀으며, 6월 4일에는 4000명을 넘어서 4268명에 달했다. 6월 8일에는 4808명으로 5000명에 육박했다. 한마디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파키스탄의 의료 인프라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sup>11)</sup>

6월 19일자 보고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인도네시아는 연일 1천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며 누적 확진자 수가 4만2천 명을 넘었다. 한때 이주노동자 집단 감염 등으로 COVID-19 감염자 수가 빠르게 증가했던 싱가포르를 넘어 동남아시아

5) 동아일보 2020년 4월 18일자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00418/100712285/15>

6)MBC뉴스 2020년 6월 29일자

[https://imnews.imbc.com/news/2020/world/article/5826200\\_32640.html](https://imnews.imbc.com/news/2020/world/article/5826200_32640.html)

7)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80721>

8) 중앙일보 2020년 6월 10일자 <https://news.joins.com/article/23797909>

9) KBS뉴스 2020년 6월 23일자 <http://mn.kbs.co.kr/news/view.do?ncd=4477638>.

10) 재외동포신문 2020년 5월 15일자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1972>.

11) 중앙일보 2020년 6월 10일자

국가 가운데 최대 감염국이 되었다. 누적 사망자 수 역시 2천3백 명을 넘으며 동남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sup>12)</sup>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세계적인 휴양지인 발리섬의 경우에는 8월부터 내국인 관광객을, 9월부터는 외국인 관광객을 허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염려를 더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지난 4월 8일자 세계보건기구(WHO)의 통계에 따르면, 확진자 4,119명 중 사망자 65명으로 보고되고 있다.<sup>13)</sup> 지난 3월 18일부터 시작된 이동통제명령을 현재까지도 강력하게 유지하는 등, 생활 방역면에 있어 비교적 다른 아시아의 이슬람 국가들에 비해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어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격히 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무서운 전파력을 가지고 있는 COVID-19바이러스는 이슬람 세계에서도 빠른 속도로 감염자 수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증가추세라면, 이슬람 세계가 서양의 선진국가에 비해 의료 등의 사회적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깊은 경제적 침체와 의료시스템 붕괴 등의 다양한 사회적 혼란과 어려움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2. COVID-19의 확산에 따른 이슬람 국가의 경제적 피해

이슬람 경제는 한국경제 또는 유럽경제라는 말과는 그 의미에 있어 차이가 있다. 한국경제라고 하면 한국이라는 한 국가의 경제를 지칭한다. 유럽경제라고 말할 때는 유럽공동체의 경제 또는 경제권을 의미한다. 이 경우 경제라는 의미는 대부분 자본주의 틀 속에서 운영되는 경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슬람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도, 사회주의 경제도 아닌 제 3의 경제를 의미한다. 그 이유는 이슬람 국가는 이슬람이라는 거대한 종교원리가 모든 법과 인간생활의 규범, 즉 무슬림들의 모든 삶의 원리에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경제도 이슬람 종교의 커다란 틀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이슬람 경제는 제 3의 경제로서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적 원리 안에 존재하는 이슬람 경제는 그간 그 상황이 좋다고 말할 수 없었다. 천연자원으로서 석유를 소유하고 있는 산유국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이슬람국가의 경제는 정치 종교적인 이유로 서구에 비해 산업화가 상당히 늦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정이 좋지 못하다. 이란 같은 경우에도 확인매장량 기준 원유 세계 3위, 천연가스 세계 2위의 자원 대국이지만 2018년도에 실업으로 인한 시위사태가 일어났을 때를 보면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29위, 1인당 GDP는 4683달러로 세계 96위 수준이었다. 석유와 가스가 넘쳐도 국민은 가난하다는 것이다.<sup>14)</sup> 이러한 상황은 현재에도 크게 변함이 없다. 또한 아랍의 봄<sup>15)</sup> 이후에 정치적 불안정으로 경제 성장률이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들도 상당수 이다. 예를 들어 이집트의 경우 아랍의 봄 이후 외환보유액 면에 있어 GDP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국제관광의 위축으로 수입은 '10년 US\$136 억에서 '15년 US\$69억으로 대폭 감소했다.<sup>16)</sup>

12) 연합뉴스 2020년 6월 19일자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0619001100038>

13) 주간 ASEAN동향(2020년 4월 6일-4월 9일) 2020년 4월 9일자

14) 중앙일보 2018년 1월 12일자 <https://news.joins.com/article/22282647>

15) 중동과 북아프리카 전역에서 일어난 아랍권의 민주화 시위를 말한다. 파업 참여 운동의 지속, 데모, 행진과 대집회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조직, 의사소통, 인식 확대를 통해 광범한 시민의 저항 운동이 일어났다. 이 시위는 2010년 12월 17일 튀니지 혁명 이후에 폭발하여 2011년에 절정, 그리고 2020년 현재까지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

16) “중동주요국의 국가 지속가능 발전전략 이행과 활용전략” 10.

이러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이슬람 국가들은 이슬람 적 사고와 그 틀 안에서 서구 자본주의 경제와 접목시키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왔다. COVID-19가 확산되기 전에 할랄 상품<sup>17)</sup>은 할랄 상품이 가진 종교적 의미뿐만 아니라, 제품의 유통이나 보관 과정 중에 철저한 검증을 거쳤다는 일종의 안심 마크 기능을 가지고 있어 비 이슬람교도 사이에서도 좋은 이미지화 마케팅이 성공하면서 할랄 산업의 세계화 시도로 일부 국가에서 경제 성장의 좋은 성과가 기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COVID-19의 국제적 확산은 세계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전 미 국무부 장관인 헨리 키신저(Henry Alfred Kissinger)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COVID-19로 세계질서가 바뀔 것”이라며 “자유 질서가 가고 과거의 성곽시대(walled city)가 다시 도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COVID-19의 판데믹이 종식되더라도, 세계는 이전과 절대로 같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sup>18)</sup> 세계적인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1930년대 대공황 수준의 최악의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이 가능한 이유는 바이러스의 확산은 세계경제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각국 인구규모별 감염률과 치사율에 따라 노동량 공급의 감소현상을 가져왔으며, 국가별, 산업별로 글로벌 공급망이 차단됨으로 생산 네트워크 차질이 발생하였다. 또한 이에 따른 기업의 생산비용과 거래비용의 증가되었다. 이는 무역량의 감소를 유발하여 기업의 경제적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또한 국가별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가계소비가 감소되었으며,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 기업의 불가피한 구조조정으로 급여삭감과 해고가 급증되어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여 빈곤계층의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더 나아가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부양을 위해 국가별 정부지출이 증가하므로 경제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되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전 세계 GDP가 전체적으로 크게 감소하여 세계 경제의 침체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sup>19)</sup>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Кристилина Ивановна Георгиева)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2020년 4월 3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한 연설에서 “IMF 역사상 세계 경제가 멈춰 서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 COVID-19의 경제적 파장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힌바 있다.<sup>20)</sup>

이러한 세계 경제의 어두운 흐름은 이슬람 세계도 예외가 아니다.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들이 밀집해 있는 중동의 경제상황을 그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다. 국제금융협회(IIF;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Inc)는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해 2020년 중동지역(대부분의 이슬람국가)의 경제성장률을 2.4% 하락한 0.8%로 하향 전망했다.<sup>21)</sup> 이러한 전망은 지난 4월 OPEC의 한시적인 원유감산 합의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수요급감에 따른 저유가 기조로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산유국의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지난 3월 이미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올해 정부지출을 지난해보다 5% 줄이겠다”고 선언한바 있다. 더욱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올해 매년 2천만 명

17) 할랄(Halal)은 아랍어로 ‘허용된 것’, ‘신의 허락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슬람 율법상 무슬림이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주로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에 대한 인증을 뜻하며 물류나 금융·관광 분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 식품 신시장 『할랄(Halal)』”(삼정KPMG 경제연구원, June, 2015), 3.

18) “코로나 19, 대공황 수준 경제위기 ...” 중앙일보 2020년 4월 5일자.

19) 이규엽외 12명, 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의 국제적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Kore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대외경제정책연구원, March, 2020), 6.

20) “코로나 19, 대공황 수준 경제위기 ...”

21) 윤세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산에 따른 중동지역 경기부양책과 시사점,” (KITA Market Report, KITA Overseas Network, Apr. 13th 2020). 2

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성지순례를 일시적으로 전면 금지하므로 그 경제적 손실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레인의 경우도 국제 발행 계획을 중단하고 서방국 대형은행과 직접 10억 달러 대출협상에 나서기도 하였다. 중동의 산유국들은 경제개혁과 산업다각화를 공격적으로 진행하느라 최근 몇 년간 빚도 상당히 부담으로 안고 있는 형편이다. 이 와중에 COVID-19로 인한 전 세계적 경기부진이 겹쳐 경제적 피해가 더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sup>22)</sup> 이들 국가는 저유가파장이 국가재정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재정수입감소는 경제개혁 차질을 가져와 국민 불안을 높이고 이러한 불안은 정권의 불안으로 표출되는 악순환으로 번지고 있다.

중동의 이슬람 산유국들 보다 더 그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많은 국가들이 있다.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튀니지 등 관광산업에 국익을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들은 천연가스나 석유가 거의 나지 않는 관광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다.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가 자국내는 물론 해외의 이동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이들 국가들의 관광산업이 붕괴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다. COVID-19 사태가 장기화되면 이들 이슬람국가들의 경제 성장 동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레바논은 3월부터 채무불이행 상황에 놓여있다. 이집트는 지난 2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신속금융제도를 통해 27억 7000만 달러(한화 약 3조 3021억 원)의 긴급 자금을 지원받았다.

COVID-19가 확산되기 전에도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으나 COVID-19사태까지 겹쳐 젊은 세대들의 일자리 부족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란 같은 경우에는 국가부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미 3월에 2만 명이 넘는 COVID-19의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이슬람적 신정일치 체제를 내세운 권위주의적인 정권이 41년간 장기집권 중에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라크, 수단, 예멘, 팔레스타인, 시리아 등 내전 등의 이유로 분쟁이 잦은 중동국가들은 경제구조가 상당히 취약하여 보건체계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자금을 운영할 여유조차 없다는 것이다. 이들 국가들은 국제통화기금(IMF)에 COVID-19 대응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이다. 뉴욕타임즈는 COVID-19의 여파가 이란, 이라크, 베네수엘라, 리비아 같은 석유의존도가 높고 재정 상태와 외채 상황 능력이 빈약한 국가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부도 위험을 거론했다.<sup>23)</sup>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넓게 형성되어 있는 이슬람 국가들의 경제적 상황은 중동의 이슬람국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COVID-19 바이러스의 확산이 앞으로 장기화 될 경우 국제통화기금 등의 국제적 지원과 각국의 경기부양 정책이 있다하더라도 현대적 산업화에 뒤처지고 정치적으로 불안한데다 관광수입에 의존도가 큰 다수의 이슬람 국가들의 경제적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경기부양책이 성공적이라 하여도 대부분의 낙후된 경제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회복하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사회적으로 가져올 변화와 무슬림들의 삶에 끼치는 영향은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된다.

### 3. COVID-19 확산이 이슬람의 종교적 실천에 끼치는 영향

#### A. COVID-19확산의 상황에서 라마단 실천의 어려움

22) 동아일보, 2020년 3월 26일자

23) Ibid.

모든 무슬림은 매일 다섯 번의 기도(예배)를 하고, 매년 한 달 동안 이슬람력으로 라마단 달<sup>24)</sup>에 단식을 한다. 이 기간 중 대부분의 무슬림들이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 까지 무엇 이든 마시거나, 먹지 않는다. 사실 해가 뜨기 전 음식을 만들어 먹고, 해가 진 뒤에도 음식을 먹으므로 점심 한 끼를 굶는 것이겠지만, 라마단 달이 더운 날씨에 겹치거나, 지나치게 해가 길을 때 겹치면, 낮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sup>25)</sup> 그러나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어두운 얼굴을 라마단 달 동안 단식을 실천하는 무슬림들에게 쉽게 찾아볼 수 없다. 단식을 하지만, 무슬림들은 라마단 달 동안 경건한 모습과 함께 축제를 즐기는 듯 보인다.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라마단 한 달 동안 전 세계 무슬림들이 단식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한 달 동안 해가 지기 전까지 하루 종일 단식을 하므로 이에 동참하는 사람들과 강한 연대감을 생성한다. 그들의 집에서뿐만 아니라 직장 등 공적 영역에서도 단식에 참여함으로써 이슬람의 힘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있다. 더 나아가 수백만의 비 무슬림도 그것을 느끼도록 한다.

라마단 단식의 유래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시대로 거슬러 간다. 단식을 실천하는 관습은 당시 아라비아의 다신교도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었다. 꾸란은 동료 부족원들에게 설교하는 무함마드를 이야기하며, 금식을 언급한다.(2:183참조) 캐롤 힐렌브렌드는 그의 책 『이슬람이야기』에서, “아내 카디자를 대신하여 메카에서 북으로 이동하는 여정 중 무함마드는 아라비아와 시리아의 사막에서 기독교 은둔자들이 영적인 훈련을 하는 것을 보거나 들었을 것이다. 또한 그는 유대인 예언자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물과 음식도 없이 40일을 버틴 이야기를 알고 있었으며, 예수가 동일한 기간 동안 단식에 들어간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단식의 유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sup>26)</sup>

무슬림들의 기록에 따르면 무함마드가 메니다로 이주한 후 처음에는 유대교의 속죄일을 이슬람에 도입하였다고 한다. 꾸란은 이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너희 선임자들에게 단식이 의무화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너희에게도 단식은 의무라. 자제함을 통하여 의로워질 것이라”(2:183).<sup>27)</sup> 유대인의 대속죄일을 단식의 날로 지키던 무함마드는 이를 라마단으로 대체하였다. 다시 말해서, 꾸란의 계시에 따라 무함마드는 이슬람력 9월 한 달을 단식 기간으로 정하고 이를 공표하였다. 꾸란 2:185는 이를 자세히 설명한다. “사람을 위한 복음으로 그리고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라마단 달에 꾸란이 계시되었나니 그 달에 임하는 너희 모두는 단식을 하라.”

라마단의 단식은 그 실천방법에 있어 상당한 독특함을 지니고 있다.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하

24) 이슬람 종교의례는 태음력인 이슬람력에 따라 정해지는데, 아홉 번째 달인 라마단은 1년 내내 찾아온다. 서양력의 1년 길이가 365일인데 비해 태음력인 이슬람력의 1년은 354일 정도이니, 매년 이슬람력은 11일 정도씩 짧아진다. 그래서 라마단 달은 1년 중 어느 계절에도 올 수 있다. 따라서 태양이 내리쬐는 삼복더위의 여름철에 라마단 달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혹한의 겨울에 올 수 있다. 33년이 지나면 사계절을 돌아 제자리로 오게 된다. 라마단달은 무슬림들에게 성스러운 달로 묘사된다. 꾸란이 최초로 계시된 달이며, 단식을 하며 신을 경배하는 달, 인간의 기원을 신에게 전달하기 위해 하늘의 천사들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룩한 달이다. 또한 무함마드의 군대가 바드르전투에서 적군에게 첫 승리를 거둔 달이며, 불우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선의 달로 묘사되고 있다. (최영길, "이슬람교의 단식에 관한 연구," 한국중동학회, 24-1(2003),11-12).

25) 이희수, 『이슬람』 (서울:청아출판사,2000),155-156.

26) 캐롤 힐렌브렌드, 공지민 옮김, 『이슬람이야기』, (서울: 시그마북스, 2016),105.

27) 최영길, 『꾸란 의미의 한국어 해설서』, (파하드 꾸란 국왕청, 1998).

여 볼 수 있다.<sup>28)</sup> 1. 무슬림의 단식은 완전한 단식, 즉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완전히 금하고, 나아가 성행위까지 금하는 것이다. 2. 무슬림의 단식은 식사시간에 한정된 절제가 아니라 해가 떠오를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절제를 실천하는 것이다. 물론 입을 행구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3. 무슬림의 단식은 특별한 날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한 달 내내, 즉 라마단 달 내내 실천하는 것이다. 라마단 달은 이슬람 음력의 아홉 번째 달로서 모든 계절에 올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단식을 깨뜨리는 행위를 하지 않고 단식을 지속할 경우에는 해가 지고 난후 단식을 멈추고 무함마드가 하던 대로 대추와 물을 먹은 후 식사를 하는 것이 권장된다. 그리고 다음날 해가 뜨기 직전 하루의 마지막 식사를 해야 한다. 다시 해가 진 후에는 가족 및 친구들과 모여서 식사를 반복한다. 이러한 활동으로 무슬림들은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결속력을 높인다. 단식 기간 중 무슬림들은 매일 밤 지정된 특별한 기도를 하며 경건생활을 한다. 라마단 마지막까지 꾸란 전체를 낭독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이러한 단식의 한 달은 이드 알 피트르 축제로 즐겁게 끝난다. 이 시기에 무슬림들은 최고의 옷을 입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모스크를 방문하고 가족 및 친구들과 특별한 식사를 한다. 무슬림들이 라마단 달에 단식을 행하면서, 타 종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강한 연대감과 동질감을 가지고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단식을 정해진 시간과 기간에 참여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적어도 비 무슬림까지 “아! 라마단 기간이지” 라는 말을 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전 세계 무슬림들을 하나로 결속시켜주는 마치 무슬림들의 축제와 같았던 라마단도 COVID-19의 확산 앞에서 위기를 마주하였다. 전 세계적인 COVID-19의 판데믹 하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자신의 건강을 보살피며 면역력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가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2020년 4월 24일 이슬람 라마단 달의 금식이 시작되었으나 18억 무슬림들에게 이번 라마단이 COVID-19 확산의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 라마단을 마쳐야 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요르단, 이란, 인도네시아 정부 등은 모스크에 모여서 하는 저녁기도를 금지하고 ‘재택기도’를 해야 한다고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최고 성지 메카 대 사원과 메디나 예언자 사원의 문을 잠갔다. 이슬람의 세 번째 성지인 예루살렘의 알아크사 사원도 라마단 기간 동안 전례 없이 문을 닫았다. 바레인도 저녁기도를 위해 알파테 대 사원 한 곳만 개방하지만 한번에 5명만 입장할 수 있다는 조건을 두었다. 이집트도 모여서 식사하는 이프타르<sup>29)</sup>와 저녁기도를 금지했다. 알제리 역시 라마단 기간 동안 모스크 입장을 금지하고 설교나 꾸란 낭독은 미나렛<sup>30)</sup>에 달린 스피커를 이용해도 된다는 파트와를 내렸다.<sup>31)</sup>

UAE의 경우 보건예방부와 국가위기관리청에서 라마단 기간 내 COVID-19 확산을 방지

28) 한스 쿵, 손성현 옮김 『이슬람』 (서울: 시와진실, 2006), 272.

29) (아랍어: **إفطار**)는 라마단 기간에 무슬림이 먹는 저녁 식사의 통칭이다.

30) 이슬람교 사원의 외곽에 설치하는 첨탑

31) 서울신문 2020년 4월 24일자

하기 위해 모임 및 집단 예배와 개인의 배식을 금지하였다. 작년까지만 해도 가족, 친구들과 모여 이프타르를 함께하기 위해 외식을 하거나 집에 초대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요식업이나 식료품 소매업이 활성화 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2020년에는 식당 및 카페의 제한적인 운영과 바이러스 확산의 우려로 소수 인원이 가정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보편적인 이프타르의 모습이 되었으며, 일부는 영상통화를 활용해 온라인상에서 함께 식사를 즐기기도 하였다.<sup>32)</sup> 모스크 방문 예배도 금지되어 TV나 온라인 매체를 통해 가정에서 예배를 보았으며, 라마단 기간 많이 하는 자선행위도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기이한 풍경이 연출되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UAE정부가 COVID-19환자와 의료진들은 라마단달의 단식을 예외로 인정하겠다고 발표했던 사실이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정부는 라마단 기간에 COVID-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이동제한을 두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조코 위도도(Joko Widodo)는 라마단 전날 성명을 통해 “라마단을 개인과 가족, 국가 전체를 위해 전염병 전파의 사슬을 끊는 시기로 만들자”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올해 라마단은 COVID-19사태로 예년과 전혀 다른 분위기이다. 금식의 진정한 의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집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예배드리는 규율을 유지해 달라. 금식 기간 사랑하는 사람을 보살피고 자신을 단련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라마단 귀향을 막기 위해 육로, 하늘길, 바닷길을 제한했으며, 인구가 밀집한 자바섬을 중심으로 주요 귀향경로 2천 582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군·경 17만 1천명을 투입해 위반자를 단속하기도 하였다. 작년 라마단 기간에는 2억 명의 사람들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번 COVID-19사태로 인한 대통령의 담화는 매우 특별한 것이었다.<sup>33)</sup>

말레이시아 압둘라 아마드 바다위(Abdullah Ahmad Badawi)총리는 라마단 담화를 통해 “모든 무슬림이 COVID-19확산 차단을 위한 규정을 지키면서 금식 기간 건강을 유지하기 바란다”며 “힘든 시기를 인내하고 이동제한 명령을 준수해 달라”고 국민들에게 요청하였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3월 18일부터 시행해온 이동 제한령을 2주 연장해 5월 12일까지 8주간 유지했다.

무슬림들에게 라마단 달의 단식은 세계 무슬림들의 결속과 융합, 그리고 종교성을 고양시키는 중요한 의무로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올해의 라마단달의 단식은 COVID-19 확산이라는 상황에서 지켜야 하는 만큼 지금까지 행해왔던 라마단 달의 단식과는 다른 풍경이 그려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라마단 달의 단식과 축제에 함께 참여하며 결속과 융합의 의미를 부여하던 이전과는 달리 단체행동은 할 수 없었지만, 개개인이 단식을 변함없이 행함으로써 라마단 달 단식의 정신적인 의미를 더욱 강조하는 기간이 되었다. 이것은 무슬림들이 종교적 관습이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참여함을 넘어서서 그들에게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삶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의 정도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예라 볼 수 있으며, 오랫동안 지켜온 종교적 관습이지만 그 행태가 상황과 시대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다

32)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81563>

33) <http://kor.theasian.asia/archives/260666>

는 것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예이다. 이것은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또 다른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 B. COVID-19확산에 따른 순례(haji: 하즈)의 새로운 해석

하즈는 세계에서 한 곳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종교행사 중의 하나로 손꼽을 수 있다. 고대 아랍 사회의 의례가 수용되어 정신적으로 승화된 것으로서 성지순례가 행해지는 것은 마지막 달인 돌-히자 달 중이(2:196)며, 매년 약 200만 명이상의 무슬림들이 종교적 의무인 순례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로 모인다. 순례는 돌 히자 달 17일에 시작되어 6일간 지속된다. 순례를 마치고 성지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하지라는 존칭을 부여해준다. 순례 중 세상을 하직하는 사람은 샤히드(순교자, 신앙의 증인)으로 간주하며, 하즈를 마치고 메디나로 가서 무함마드의 묘를 참배하는 이들도 있다. 일반적으로 무슬림들의 순례는 순서와 장소를 정확히 아는 가이드를 따라 행해진다.

온 세계 사람들을 메카에서 만난다는 것, 그리고 이슬람 최대의 성역에서 그들과 함께 의례를 행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무슬림들 사이의 일체감을 강화시켜주는 의미가 있다.

지난 3월 4일(현지시각)자 AP, BBC 등의 주요 외신보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해 메카와 메디나 성지순례를 전면 금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앞서 사우디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성지순례를 금지하였으나, COVID-19에 감염된 확진자가 증가하므로 자국민에 대한 순례도 금지를 발표할 계획이었다.<sup>34)</sup> 메카에서의 성지순례는 압사 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가깝게 모이기 때문에 전염병 감염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와 비정기 성지순례(우라)와 정기적 하즈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가 직간접으로 얻는 수익은 약 120억 달러, 14조 6천억 원에 달해 올해 성지순례가 대폭 축소되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따르게 된다.<sup>35)</sup>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이러한 고민이 계속되는 가운데 세계 무슬림 올라마 협회(International Union of Muslim Scholars)의 사무총장이자 카타르대학교 샤리아·이슬람학 대학 소속 이슬람법 교수인 알리 알 까르다기(Ali al-Qardaghi)는 성지순례에 관한 파트와(fatwa), 즉 샤리아에 따른 법적 판결을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성지순례가 전염병으로 인해 중단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930년 쉬아 이스마일파의 분파인 까르마트파(Qarmatian)가 메카를 습격하여 순례자들을 살해하고 카바 성원의 흑석을 탈취하는 사건과 같은 정치적 혼란과 전쟁이 성지 순례 중단의 원인이 된 적은 있어도 전염병 확산으로 순례가 중단된 적은 없었다. 일례로 이슬람력 357년(서기 968-969년) 메카에 발생한 전염병으로 수많은

34) BBC뉴스 2020년 6월 23일자.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3146759>

35) 오마이뉴스, 2020년 3월 5일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18877](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18877)

순례자들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하는 등 전염병으로 순례 규모가 줄어들고 순례자들이 큰 피해를 입은 사건은 있어도 전염병 때문에 아예 순례가 완전히 취소된 적은 없었으며, 심지어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가 확산되고 성지 순례 취소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었을 때에도 사우디 정부가 검역과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노약자와 환자의 순례를 금하는 수준에서 끝났고 순례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르다기는 COVID-19가 더욱 확산되어 순례자들의 감염 우려가 깊어져 안전한 순례가 담보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순례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 내린다.<sup>36)</sup>

이와 마찬가지로 이집트 종교계를 대변하여 종교적 사안에 대한 파트와를 내고 있는 이집트 정부기관인 다르 알 이프타(Dar al-Ifta)의 우와이다 우쓰만('Uwaydah 'Uthman)<sup>37)</sup>도 COVID-19로 인한 성지 순례 금지 조치가 “인간의 생명 보호와 공동체의 이익 추구보다는 해악의 방지”라는 샤리아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히며 사우디의 발표에 종교적 정당성을 실어주었다.<sup>38)</sup>

이러한 상황가운데 가장 최근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메카 정기 성지순례인 '하지'를 "매우 제한적인 수"에 한해서만 허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법이 부재한 현실과 대규모 모임 개최에 따른 위험 등을 고려해 순례자 수를 대폭 제한하기로 했다고 AP통신이 23일 보도했다. 담당 부처는 이미 사우디에 거주 중인 여러 국적의 사람들에게 한해 순례를 허용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제시하지 않았다.<sup>39)</sup>

### C. COVID-19 확산에 따른 금요일예배 중단상황

무슬림들에게 예배는 종교적 의무로서 그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예배는 하루 다섯 번 일정한 시간에 맞춰 드리는 살랏(*Salat*)이라는 기도와 금요일 성원에 모여 드리는 공적예배가 있다. 대부분의 무슬림들이 이러한 형태의 예배를 거르지 않고 실행하고 있다. 특히 금요일 공적 예배에서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지만, 매우 밀접하게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COVID-19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자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에서는 금요일에 드리는 공 예배를 금지하였다. 우선 중동의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는 3월 둘째 주부터 자국 내 모든 이슬람 성원의 금요일예배를 일시적으로 취소하였다. 무함마드 알이사(Muhammad Al Isa) 무슬림세계연맹 사무총장은 현지시간 17일 국영 방송을 통해 “모스크 대신 가정에서 예배를 보는 것을 샤리아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전염병 대유행

36) <https://harmlessmostly.tistory.com/45>

37) 다르 알 이프타의 수장인 최고 무프티(*Grand Mufti*)를 보좌하는 파트와 보좌관(*Amin al-Fatwa*)이다.

38) Ibid.

39) KBS뉴스 2020년 6월 23일자,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477095>

을 예방하려면 예외 없이 사람이 모이는 행사를 중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sup>40)</sup>

수니 무슬림 사이에서 가장 큰 권위를 지닌 기구인 이집트의 알 아즈하르(*al-Azhar*)의 고위 울라마들은 3월 15일 필요할 경우 정부 당국이 모스크를 폐쇄하고 금요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샤리아에 따른 합법적 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3월 21일 이집트 정부가 국내 모든 종교시설의 예배와 미사를 전면 금지하자 종교성은 예배를 알리는 아잔(*adhan*)의 문구를 “예배하러 오시라”에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라”로 바꾸고 아즈하르는 이를 정당화 하는 파트와를 발표해 종교계가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sup>41)</sup>

쿠웨이트 종교당국은 성명을 통해서 “성원들의 문은 닫혀 있을 것”이라며 “파트와(이슬람 율법해석)에 따라 금요일에 모스크에서 열리는 기도예배에 참석할 필요가 없고 COVID-19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집에서 기도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밝혔다.<sup>42)</sup>

알자지라 방송에 의하면 이슬람 시아파 맹주인 이란에서는 이미 주요도시에서 금요예배가 취소되었다고 전했다. 레바논도 마찬가지로 이슬람 시아파 성원들에서 금요예배를 일시적으로 중단하였다.

한국의 무슬림들도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간인 5월 5일까지 공적 예배 등의 모든 모임을 갖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월 28일부터 모든 한국내 이슬람 성원 및 예배소에서 실행하는 금요 합동 예배를 중단해왔다.<sup>43)</sup>

그러나 이러한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파카스탄에서는 정부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금요 예배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한다. 파키스탄 정부는 5명이 하 모임이라는 제한적 조건을 두었지만 파키스탄 외곽으로 갈수록 COVID-19 감염과 확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금요 예배를 위해서라면 자신들은 죽음을 불사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sup>44)</sup>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에서는 COVID-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무슬림들의 종교적 의무인 금요 예배조차 중단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파키스탄의 일부 무슬림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에서 모여서 드리는 금요예배는 잠시동안이라도 중단된 것으로 보여진다.

COVID-19 상황하에서 라마단달의 단식실천, 순례의 중단 등과 동일하게 이러한 국가의 강력한 조치에 앞다투어 동의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종교지도자들과 이를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무슬림들을 볼 때,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상황과 시대에 맞추어 유연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어떤 종교보다 믿음과 그 실천에 있어 강한 연관성을 그 특성으로 가지는 종교가 이슬람이다. 믿음만큼 종교적 의례와 실천을 중요하게 여기는 대표적인 종교가 이슬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상황과 시대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종교적 의례의 실천에 있어

40) MBC뉴스 2020년 3월 18일자,  
[https://imnews.imbc.com/news/2020/world/article/5673445\\_32640.html](https://imnews.imbc.com/news/2020/world/article/5673445_32640.html)

41) <https://harmlessmostly.tistory.com/45>

42) 한국경제 2020년 3월 14일자,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03140599Y>

43) 뉴스1 2020년 4월 24일자,  
<https://www.news1.kr/articles/?3917421>

44) <https://www.reuters.com/>

유연함을 가지는 것 또한 이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있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1400여년을 끊임없이 흘러온 이슬람의 모습이며, 강한 전파력과 확장성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가 지닌 특성이라 생각된다.

#### 4. 무슬림을 향한 혐오의 판데믹

COVID-19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혐오와 반감까지 확산시키고 있다. 바이러스는 상대를 가리지 않지만 감염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고조되면서 인종과 종교에 대한 차별이 날마다 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 지역에 따라서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른바 이러한 현상을 “혐오의 판데믹”이라 한다. 이러한 “혐오의 판데믹”현상으로 인해 비 무슬림들이 다수인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의 무슬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이러한 지역은 원래 인종과 종교에 대한 갈등이 늘 존재했던 곳이 대부분인데 이번 COVID-19 감염증으로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사실 무슬림들에 대한 종교적, 인종적 차별은 어제 오늘의 이슈라고 볼 수는 없다. 특별히 ‘9/11’이후 발생한 이슬라모포비아(Islamophobia)현상<sup>45)</sup>에 이제는 COVID-19 감염증이 더해 일부 지역에서 무슬림들에 대한 혐오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태도가 미디어를 통해 여과 없이 보도되고 있으며, SNS 등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감염에 대한 공포증과 더불어 무리를 지어 확산되고 있다. 특징적으로 이러한 무리지음, 공동체 결성에는 나이와 학력 등의 제한이 없이 한 가지 무슬림에 대한 혐오, 공존을 반대하는 의견에 관한 일치로, 같은 의견을 공유한다면 가능하기에 그 파급효과가 사회적으로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인도에서는 무슬림들이 ‘인간폭탄’ 또는 ‘COVID-19 지하드’로 낙인찍히고 있다. 최근 인도 슈도 뉴델리의 변두리에서는 한 무슬림 청년이 힌두교도들에게 끌려가 매질을 당했다. 지역 사회에 고의로 바이러스를 퍼뜨린다는 게 ‘죄목’이었다. 급진 힌두교도들은 ‘무슬림들이 식수에 바이러스를 옮긴다’라는 음모론까지 퍼뜨리며 노골적으로 무슬림 핍박에 나섰다.<sup>46)</sup> 이는 이슬람집회 이후 감염자가 확산되면서 무슬림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핍박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다. 미 일간 뉴욕타임즈는 “감염병이 번지면 비난의 대상을 찾기 마련”이라며 “힌두교가 지배하는 인도에서 13억 인구 중 무슬림 2억 명보다 더 악마적인 집단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sup>47)</sup>

캄보디아에서도 무슬림들은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한 모스크에서 열린 이슬람 종교 집회에 참석했던 캄보디아인 무슬림 중에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캄보디아 내에서는 자신이 무슬림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

45) 일반 평범한 무슬림들과 무슬림테러리스트를 일반화시켜 이슬람을 종교로 가진 모든 무슬림을 테러리즘을 신봉하는 이슬람 테러리스트와 같은 무리로 이해하고 두려워하거나 혐오하는 인식

46) 동아일보 칼럼 2020년 4월 29일자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00429/100849136/1>

47) 한국일보 2020년 4월 13일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4131640332514>

이 급하게 마스크를 쓰고 피한다거나, 상점에서는 캄보디아 무슬림들을 쫓아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무슬림들이 곧 COVID-19 확진자라는 잘못된 낙인이 찍힌 것이다. 최근 캄보디아 SNS에서는 무슬림들이 COVID-19바이러스를 자국으로 들여와 전국적으로 퍼뜨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불교국가인 캄보디아는 다수가 불교를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이슬람을 종교로 신봉하는 무슬림들은 소수로서 이들 사이의 갈등이 최근 바이러스로 촉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캄보디아의 무슬림연합회 대표는 “최근 캄보디아인 무슬림들이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시민들의 불안감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차별과 공포로 COVID-19를 해결하진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sup>48)</sup>

친 탄(chin tan) 호주 인권위원회 인종차별위원장은 ABC방송에서 “COVID-19는 인종이나 국적과 무관하지만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와 좌절이 차별을 정당화 한다”고 분석했다. ‘전염병-혐오, 공포-차별’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것이다.<sup>49)</sup> 그러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혐오와 차별”은 질병 통제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이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1918년 스페인 독감 유행 당시 미국에서 흑인들은 바이러스 전파자로 몰려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 감염이 악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The Guardian)도 “과도한 공포는 적절한 통제를 포기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sup>50)</sup>

이러한 혐오와 차별의 현상에 대해 무슬림들, 동양인들 등 특정 인종이나 종교적 집단을 질병과 연관시키고 거기에 역사적으로 편파적인 선입견을 반영하면 그 연결고리를 끊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과거의 수많은 역사에서 반복되어진 일이다. 무슬림들이 혐오의 판데믹 안에 갇혀 안타까운 상황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놓이는 것은 미래를 생각할 때 기독교인들이나 무슬림들 더 나아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두가 함께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서 공동의 선을 추구하기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차별이나 배제 없이 특정한 이들을 향한 혐오로부터 벗어나서 COVID-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내는 것이 모두의 미래를 위해 지향해야 할 일이다.

### III. 결론 : COVID-19 상황하에 이슬람선교를 위한 제언

48) 아시아타임즈 2020년 3월 24일자

<https://www.asiatime.co.kr/news/newsview.php?ncode=1065576325120647>

49) 파키스탄에서는 정부가 COVID-19의 확산을 막기위해 전국적으로 마을을 봉쇄하였는데 그 후 소수 종교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각하게 보고되고 있다. 한 예로 파키스탄의 펀자브 내 카수르 구역에 위치한 산다 칼란 마을에 기독교인 100가정 이상은 식료품 지원에서 제외되었으며 무슬림들에게만 음식이 전해졌다”라고 보고되고 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COVID-19로 일자리를 잃었으며 현재 외부의 지원 없이는 굶주림에 처할 위험에 놓여있어 이러한 차별은 매우 부당한 것이다. (미션 투데이; <http://www.missiontoday.co.kr/news/9464>).

50) 한국일보 2020년 4월 13일자

앞서 언급하였듯이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3월 11일 COVID-19를 판데믹으로 공식 선언하였다. COVID-19감염증은 국제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정치이념 혹은 경제구조 변화의 정도를 넘어 사람들의 생활방식과 사회구조를 바꿔놓고 있다. 전 세계는 COVID-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혼란의 상황은 이슬람 세계에도 예외가 아니다.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혼란뿐만 아니라 1400여년이 넘도록 지켜온 이슬람의 종교 관습까지 통째로 변화를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병들고, 굶주린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감염증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죽음에 이를지 모르는 두려움과 이로 인한 혐오와 차별이 가득한 현실에 마주하고 있다.

전대미문의 COVID-19라는 바이러스 확산이 가져온 혼란스러운 사회적 분위기 속에 서로에 대한 경계와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무슬림을 향한 선교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오랜 시간 무슬림들을 향한 선교적 연구와 사명을 감당해 오며, 무슬림 선교에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날 겪고 있는 혼란 가운데 수난당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고민은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현재의 혼란스러운 선교적 상황 앞에서 복음을 전달하는 다양한 행위에 대하여 겸허한 선교적 성찰을 요구한다. 이러한 과정을 데이비드 보쉬(David Bosch)는 그의 책 *Transforming Mission*에서 선교는 기본적으로 선교적 행위(action)와 선교적 성찰(reflection)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sup>51)</sup>

그렇다면 선교적 행위와 성찰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으로서 선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 의미를 폭넓게 생각해보자면, 그리스도의 말씀 즉 복음(text)이 모든 상황의 장벽과 차별과 언어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서, 전해져야 하는 상황(context)안에 온전히 존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52)</sup> 스티브 B. 베반스(Stephen B. Bevans)는 이와 관련하여 기독교 선교는 스스로 발견해 나가는 상황 가운데 창의적으로 그리고 담대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sup>53)</sup>

이러한 지속적인 선교를 위해서는 현재 COVID-19의 상황(context) 가운데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무슬림들도 혼란과 죽음, 공포 그리고 절망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 두 번째는 모두가 바이러스의 공포로 상처받은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선교적 초점이 상처받음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특수한 상황에서 복음의 필요에 담대하게 반응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 이슬람 선교는 무슬림들을 향한 선교에 대한 강한 소명과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모든 장벽을 넘어서듯이 상처와 죽음에 대한 혼란스러움을 넘어서야 한다. 이를 위해 누구도 배제<sup>54)</sup>하거나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예일대의 미로슬라브 볼프(Mirosław

51) David Bosch, *Transforming Mission* (NY: Orbis, 2011, revised edition), 1-14.

52) 김아영, “이슬람선교의 실천과 신학화의 중심에서:전재욱선교사의 선교적 삶과 신학에 대한 소고,” 『KMQ』 (2020년 6월호), 21- 22.

53) 스티브 B. 베반스, P. 슈레더 지음, 김영동 역, 『예언자적 대화의 선교』 (서울:크리스천헤럴드, 2007),35.

54) Volf, *Exclusion and Embrace: A Theological Exploration of Identity, Otherness Reconciliation*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6),72.

Volf's)교수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저지르는 죄악의 많은 부분은 배제하고 차별하는 행위에 있다고 한다. '배제'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타자로서 상호의존적인 방식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즉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은 타자를 자신보다 하등한 존재로서 자신과 같아야져 하는 존재이거나 자신에게 지배당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배제와 차별의 결과로 드러나는 혐오를 넘어서서 그리스도로부터 선물 받은 복음으로 무슬림들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며 축복하고 본래의 질서를 회복하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선교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겸허한 선교적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성찰은 COVID-19확산으로 인한 상처와 혼란스러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과 실천이 우리뿐만 아니라 무슬림들에게도 새로운 치유와 생명의 빛을 가져오리라는 믿음의 절박함을 가지고 이슬람 지역의 선교적 상황을 감당하는 선교적 행위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시134:13)라는 말씀과 같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의 어두운 때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며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선교를 통하여 새롭게 되는 생명을 위해 무슬림들을 향한 선교를 멈추지 말고 복음의 필요에 담대하게 행해야 할 것이다.

## ABSTRACT

### COVID-19 and Islamic World

On 11 March 2020,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declared COVID-19 a pandemic, pointing to the significantly increasing positive cases of the virus around the world and the sustained risk of its further global spread. Along with these developments of the outbreak all over the worl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experienced new challenges and problems to date, and it continues to undergo such evolving situations, with far reaching repercussions. Some scholars say that this situation may constitute a paradigm shift in terms of its overall impact to the global society. This indicates that the pandemic is not only causing serious challenges for

medical treatment of the virus itself but also generating unprecedented circumstances in international community together with its overarching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issues such as a wave of social dislocation and panic, economic depression as well as discrimination and xenophobia in the repugnant nature of racism around the world.

It appears that the similar situation goes for the Islamic countries. In addition to its particular chaotic implications in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life, Islamic society is also facing considerable difficulties which may require inevitable adjustments of its longstanding religious custom that has followed for more than around 1400 years. As such, with growing global concerns of this pandemic, a chaotic situation also continues in the Islamic world and, in turn, it affects Christian missionary works among the Islamic world with more challenges and issues that need to be addressed.

That being so, for Christian, in particular, who have been carrying out missionary studies and tasks for a long time, as part of its duty and responsibility for Christianity in the Muslim world, it is imperative to consider how the Gospel of Christ will be able to be evangelized continuously and in a more effective and secure manner in these challenging situations.

Indeed, the current situations would require deeper and more earnest contemplation for a variety of missionary works so as to deal with such chaotic circumstances in the course of Christian missionary works in the Muslim world. Furthermore, going forward, it emphasizes that Christian should take actions more resolutely yet carefully to the very demands of the Gospel in response to these specifically challenging circumstances.

#### 참고문헌

이희수, 『이슬람』 서울:청아출판사,2000.

스티브 B. 베반스, P. 슈레더 지음, 김영동 역, 『예언자적 대화의 선교』 서울:크리스천헤럴드, 2007.

캐롤 힐렌브렌드, 공지민옮김, 『이슬람이야기』, 서울: 시그마북스, 2016.

한스 쿡, 손성현옮김 『이슬람』 서울: 시와진실,2006.

“글로벌 식품 신시장 『할랄(Halal)』.” 삼성KPMG 경제연구원(June, 2015):1-24.

김아영, “이슬람선교의 실천과 신학화의 중심에서: 전재옥선교사의 선교적 삶과 신학에 대한 소고.” 『KMQ』 (2020년 6월호): 10-27

윤세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산에 따른 중동지역 경기부양책과 시사점.” KITA Market Report, KITA Overseas Network (Apr. 13th 2020): 1-14

이규엽외 12명, 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의 국제적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Kore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vol.20 no.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March, 2020): 1-14.

이수훈, “동북아안보정세 분석.” 한국국방연구원 (2020, 4월):1-7

주간 ASEAN동향(2020년 4월 6일-4월 9일) 2020년 4월 9일자

차두현, “‘코로나19’를 통해 본 ‘新 안보’와 국제질서.” *Issue Brief 10*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2020): 1-19.

최영길, "이슬람교의 단식에 관한 연구." 한국중동학회, 24-1(2003):1-14.

“코로나 19, 대공황 수준 경제위기 ...” 중앙일보 2020년 4월 5일자.

David Bosch, *Transforming Mission*. NY: Orbis, 2011, revised edition.

Frances S. Adeney, *Women and Christian Mission: Way of Knowing and Doing Theology*(2015), 194.

Miroslav Volf, *Exclusion and Embrace: A Theological Exploration of Identity, Otherness Reconciliation*.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6.

*Washington Post*. March 11, 2020.

뉴스1 2020년 4월 24일자,  
<https://www.news1.kr/articles/?3917421>

동아일보 2020년 4월 18일자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00418/100712285/15>

동아일보 칼럼 2020년 4월 29일자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00429/100849136/1>

미션 투데이; <http://www.missiontoday.co.kr/news/9464>

재외동포신문 2020년 5월 15일자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1972>

중앙일보 2020년 6월 10일자 <https://news.joins.com/article/23797909>

중앙일보 2018년 1월 12일자 <https://news.joins.com/article/22282647>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81563>

아시아타임즈 2020년 3월 24일자

<https://www.asiatime.co.kr/news/newsview.php?ncode=1065576325120647>

연합뉴스 2020년 6월 19일자

<http://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0619001100038>

오마이뉴스, 2020년 3월 5일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18877](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18877)

오마이뉴스 2020년 5월 27일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4451](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4451)

한국경제 2020년 3월 14일자,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03140599Y>

한국일보 2020년 4월 13일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4131640332514>

BBC뉴스 2020년 6월 23일자.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3146759>

MBC뉴스 2020년 3월 18일자,

[https://imnews.imbc.com/news/2020/world/article/5673445\\_32640.html](https://imnews.imbc.com/news/2020/world/article/5673445_32640.html)

MBC뉴스 2020년 6월 29일자

[https://imnews.imbc.com/news/2020/world/article/5826200\\_32640.html](https://imnews.imbc.com/news/2020/world/article/5826200_32640.html)

KBS뉴스 2020년 6월 23일자 <http://mn.kbs.co.kr/news/view.do?ncd=4477638>.

KBS뉴스 2020년 7월 30일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06291&ref=D>

<http://kor.theasian.asia/archives/260666>

<https://harmlessmostly.tistory.com/45>

<https://www.reuters.com/>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80721>

<http://www.amc.seoul.kr/asan/healthinfo/disease/diseaseDetail.do?contentId=33922>